

# 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CHURCH  
6226 CAMDEN ST. OAKLAND, CA 94605 WEB WWW.OAKCC.ORG

주임신부 Fr. Dominic Kim 김도미니코(광군) (510) 562-3843 사무실 (510) 553-9434 Fax (510) 639-4842  
사목회장 Lay council chair 게토마스(성일) (510) 589-3311 standrewoak@gmail.com  
thmschae@yahoo.com 대건회관 (510) 562-8107

미사	주일 미사	오전 8:00 오전 11:00 영어미사 12시 30분	성사	고백 성사	미사 30분전	예비자 교리	주일 오전 9:30(106회의실) 목요일 저녁미사 후(대건회관)
	평일 미사	수,금,토 오전7:30 화,목 오후7:30		유아 세례	2주일 전 신청		
신심	성 시간	매월 첫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지속적인 성체조배	병자 성사 봉 성체	2주일 전 신청	통신교리 - 전화문의	
	성령 기도회	매주 토요일 미사 후 (대건회관)		혼배 성사	3개월 전 신청		
	향심 기도회	매주 목요일 오후 8시(107회의실)		매월 첫 금 9 PM ~ 토 7 AM			
	하느님의 뜻영성	매주 목요일 오후 8시(103회의실)					
	주일 학교	매주일 오전 11:00-12:15	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40-12:40			

## 창조주가 매일 우리에게 준 4가지 과제



- 크리 인디언의 이야기 -

[제 1독서] 1열왕 19, 16-19-21

[화답송] 시편 16(15), 1-2-7과 5.7-8.9-10.11(◎ 5-참조)

◎ 주님, 당신은 제 몫의 유산이시옵니다.

- 하느님, 저를 지켜 주소서. 당신께 피신하나이다. 주님께 아뢰나이다. “당신은 저의 주님.” 주님은 제 몫의 유산, 저의 잔, 당신이 제 운명의 재비를 쥐고 계시나이다.◎
- 저를 타이르시는 주님 찬미하오니, 한밤에도 제 양심이 저를 깨우나이다. 언제나 제가 주님을 모시어, 당신이 제 오른쪽에 계시니 저는 흔들리지 않으리이다.◎
- 제 마음 기뻐하고 제 영혼 뛰노니, 제 육신도 편안히 쉬리이다. 당신은 제 영혼 저승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당신께 충실한 이에게 구령을 보지 않게 하시나이다.◎
- 당신이 저에게 생명의 길 가르치시니, 당신 얼굴 뵈오며 기쁨에 넘치고, 당신 오른쪽에서 길이 평안 하리이다.◎

[제 2독서] 갈라 5, 1.13-18

[복음 환호송] 1사무 3,9; 요한 6,68

◎ 알렐루야.

- 주님, 말씀하소서,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복음] 루카 9,51-62

성가	8시 미사	입당 202	봉헌 -	성체 180	파견 400
	11시 미사	입당 291	봉헌 주님 믿나이다	성체 161 166	파견 202

## 주일 전례 봉사

구분	연중 제13주일(6월 30일)		연중 제 14주일(7월 7일)		연중 제 15주일(7월 14일)	
	8시	교중미사	8시	교중미사	8시	교중미사
미사해설	김안토니오(휘)	허세실리아(홍숙)	정스텔라(애리)	권미카엘(창모)	김글라라(순희)	조레지나(선덕)
제 1 독서	이바오로(명국)	이베드로(기만)	김안드레아(찬곤)	정요한(석준)	이바오로(명국)	이레이몬드(창용)
제 2 독서	김안젤라(영선)	이골롬바(정연)	김글라라(순희)	손리디아(정옥)	정스텔라(애리)	이베로니카(경란)
보편지향기도	독서자		독서자		독서자	

오늘의 강론

프란치스코 교황님

전 세계 12억 가톨릭신자들을 이끌 제266대 교황에 아르헨티나의 호르헤 마리오 베르골리오 추기경이 선출되었습니다. 그런데 남미 출신이 교황이 된 것은 이번이 교회 역사상 처음이며, 비유럽권 출신으로는 시리아 출신이었던 그레고리오 3세 이후 1282년만의 일이라고 합니다. 이는 참으로 역사적이고 뜻 깊은 일입니다. 또한 그분은 첫 예수회 출신 교황이라는 점에서도 새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런 저런 기록을 세우시며, 교황이 되신 프란치스코 교황은 전임 교황이신 베네딕도 16세의 돌연사임으로 촉발된 일인데, 이 또한 특이하고 경이로운 기록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황이 서거해야 차기 교황을 선출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번에는 사임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새 교황이 선출된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모든 일이 바로 **시대의 징표**이며, **성령의 이끄심**이 아닐까? 라고 생각합니다.

"**소박하고 박애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실제 새 교황 프란치스코는 평생 성 프란치스코처럼 검소하고 청빈한 삶을 살아오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새 교황은 대주교에 착좌한 이후에도 방 한 칸짜리 아파트에 살면서 버스나 지하철로 출퇴근하셨으며, 비행기를 이용할 때도 이코노미석을 탔고, 요리도 직접 해 드시며, 매우 검소하고 서민적인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이런 모습은 그 분이 권위적인 교황이 아니라 검소하고 겸손한 교황으로서 사실 것이라는 것을 예상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교황주일을 맞아서 하느님의 뜻이 그리스도의 대리자이신 교황을 통해 이 땅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 바치는 기도는 프란치스코 교황께 더할 나위 없이 고귀한 큰 선물이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다 함께 교황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프란치스코 교황은 1936년 12월 17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이탈리아 출신 철도노동자 가정에서 태어났으며, 이름은 베르고 글리오입니다. 학창시절에는 본래 성직자가 꿈이 아니었기에, 대학에서 화공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를 받았지만 나중에 사제직에 뜻을 품어 신학교에 들어갔으며, 1969년 12월 13일 사제로 서품 되었습니다. 70년대 후반까지 아르헨티나 지방을 돌며 사목 활동을 했고, 1980년 산미겔 예수회 수도원의 원장으로 발탁됐으며, 이후 1992년 5월 20일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로부터 주교품과 함께 부에노스아이레스 보좌주교로 임명된 그는 97년에 교구장 승계권을 가진 부교구장 대주교로, 이듬해인 98년에는 대교구장에 임명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 2월 21일에는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추기경으로 서임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2013년 3월 13일 제 266대 교황으로 선출되었습니다.

**2013년 신앙생활 지침**  
**“주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루카 19,5)**

교황에 선출된 직후 그는 이름을 `프란치스코`라고 정했는데, 이는 청빈의 대명사인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를 모범으로 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황청 대변인인 페데리코 롬바르디 신부는 `프란치스코`라는 명칭이 갖는 의미에 대해

생명의 말씀

지독한 불안정 속의 안정

우리 삶이란 안정된 것이라곤 없습니다. 끊임없는 변화 속에 불안정의 연속입니다. 몸도 마음도, 우리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사건이나 상황도 어느 하나 안정되고 평화롭지 않습니다. 심지어 기도마저 그렇습니다.

기도를 통해 내적 평화나 위안을 맛보며 깨달음만을 얻는 것이 아니라, 검은 먹구름 속에 갇혀 있기 일쑤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은 머리를 기댈 곳조차 없다.' 고 말씀하신 것도 이런 맥락 속에서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여정은 고속의 탄탄대로를 달리는 것이 아니라, 구불구불한 길을, 그것도 비포장도로를 달리는 것입니다. 때론 그 길마저 끊어져 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삶이 그저 불안정하고 힘들고 괴롭기만 하다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생을 마감하는 게 더 복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깊이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머리 하나 제대로 낼 곳 없는 그런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고 성장시켜 나가는 따뜻한 기운과 힘이 있음을 알고,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서 작용하고 있는 그 빛과 기운은 한시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고요하지만 힘 있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눈이 가려져 이 사실을 감지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기 몸뚱어리와 자기 생각과 느낌만을 자기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물질 욕심을 비롯한 자기 욕심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 빛과 기운을 가려 버리고 알아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만큼이나 생을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우리 안에 있는 그 빛과 기운의 덕분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가리고 덮어 버렸음에도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마음을 가다듬어야 할 곳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를 비추고 살려내는 그 빛과 기운으로부터 잠시도 눈을 떼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공부요 수행입니다.

그러기 위해 간단없이 우리는 깨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의무감 때문이 아닙니다. 나를 감싸고 돌봐 주고 키워 주고 있는 그 빛과 기운에 대한 깊은 사랑과 신비감 때문입니다. 이 빛과 기운이 바로 성령의 현존이요 활동입니다.

이렇게 오직 성령의 현존과 활동에만 온 마음과 힘을 쏟을 때, 비로소 불안정하기만 한 현실 속에서 휘청거리면서도 쓰러지지 않고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삶에 있어서 무엇이 더 소중하고 귀한지, 무엇이 덜 그런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생기게 되며, 지혜가 가르쳐 주는 대로 행할 힘까지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죽은 이들의 장사는 죽은 이들에게 말할 수 있게 되고, 가족들과의 작별 인사마저 뒤로 한 채 하느님 나라를 알리는 일에 온전히 투신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 성직자나 수도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알고 믿고 있다고 고백하는 이라면 모두 이런 태도로 불림을 받았습시다. 오직 성령께만 마음을 모은, 하느님을 향한 온전한 투신은 우리 모두의 의무요 권리입니다.

유시찬 보나벤투라 신부  
예수회

머무름

인간 배아나 태아를 실험 대상으로 이용하는 것은  
그들이 인간으로서 지닌 존엄성을  
침해하는 범죄입니다.

그들은 출생한 아기들과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세의 생명의 복음 회칙 항

말씀의 향기

지금 이 세상 어디선가 누군가 울고 있다.

오랜만에 ‘말씀의 향기’ 란을 통해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매주 여러분을 만났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썼던 것이 1999년이니 벌써 13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암에 걸려 투병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껏 저는 몸이 건강하여 불의의 교통사고로 짧게 병상에 누웠던 적은 있어도 병에 걸려 입원 생활을 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병원은 저와 상관없는 별도의 공간이며 운이 나쁜 사람들이나 가는 격리된 수용소와 같은 곳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러던 제가 어느새 5년째 투병 생활을 하게 되었으니 ‘오늘은 내 차례, 내일은 네 차례’ 란 트라피스트 수도회의 금언을 새삼스럽게 실감하게 된 요즈음입니다.

2008년 여름, 저는 드디어 ‘내 차례’ 를 맞아 암이라는 병을 선고받고 가톨릭 신자로서 앓고, 가톨릭 신자로서 절망하고, 가톨릭 신자로서 기도하고, 가톨릭 신자로서 희망을 갖는 혹독한 할례식을 치렀습니다.

저는 이 할례식을 ‘고통의 축제’ 라고 명명하였으며 앞으로 한 달 동안 ‘말씀의 향기’ 란을 통해 아직도 출구가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고통의 피정 기간 동안 느꼈던 기쁨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주님의 지봉 위로 올라가 외치려고 합니다.

저는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불어 닥친 이 태풍은 다름 아닌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바오로가 말한 올바른 마음가짐 없이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신성 모독의 죄를 범하는 것으로 ‘여러분 중에 몸이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죽은 자가 적지 않은 것은 그 때문(1코린 11,30)’ 이라는 말씀을 떠올렸던 것입니다.

저에게 있어 암의 선고는 미국작가 N.호손이 쓴 간통한 죄로 ‘A’ 란 주홍글씨를 가슴에 새기고 사는 여주인공의 낙인과 같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병원 복도에서 마주친 머리를 깎은 천사와 같은 어린 환자의 눈빛을 보았을 때 나는 남몰래 눈물을 흘리면서 절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저 아이는 누구의 죄 때문에 아픈 것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그때 주님은 제 귓가에 속삭이셨습니다.

‘자기 죄 탓도 아니고 부모의 죄 탓도 아니다. 다만 저

아이에게서 하느님의 놀라운 일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요한 9,3)’ 그 순간 저는 비로소 죄의식에서 해방될 수 있었으며 병원 안에 있는 수많은 환자들, 아아 지금이 순간에도 얼마나 많은 가정 속에서 소중한 우리의 아빠, 엄마, 딸, 아들, 이제 갓 태어난 아기들이 온갖 병으로 스러지고, 신음하고, 죽어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은 모두 죄인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하느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있다는 진리를 깨달았던 것 입니다.

독일의 시인 릴케는 「엄숙한 시간」 에서 노래했습니다.

“지금 이 세상 어디선가 누군가 울고 있다. / 세상 속에서 까닭 없이 울고 있는 사람은 나를 위해 울고 있는 것이다. / (...) / 지금 세상 어디선가 누군가 죽어가고 있다./ 세상 속에서 까닭 없이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은 나를 바라보고 있다.”

우리들이 이 순간 행복하게 웃고 있는 것은 이 세상 어딘가에서 까닭 없이 울고 있는 사람의 눈물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건강한 것은 어딘가에서 까닭 없이 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 덕분입니다. 우리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것은 어딘가에서 까닭 없이 굶주리는 사람들의 희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어딘가에서 울부짖고 있는 사람과 주리고 목마른 사람과 아픈 사람과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울고, 내가 굶주리고, 내가 슬퍼하고, 내가 병으로 십자가를 지고 신음하면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바로 우리 곁에서 이렇게 위로하고 계십니다.

“슬퍼하지 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나라가 너의 것이다.”

최인호 베드로 | 작가

# “인간의 행복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으며

## 교회가 가르치는 참행복은 어떤 것인가요?”

사람은 질문하는 존재라고 합니다. 질문한다는 것은 이성적으로 이해를 추구하는 것이고, 이해한다는 것은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복은 무엇일까?’ 하는 질문은 동서고금을 통해 가장 많이 던져진 질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하루하루 살아가기 바쁘는데 무슨 배부른 소리냐고 눈을 흘길지도 모릅니다. 물론 사람은 물과 빵으로 갈증과 굶주림을 해결해야 하는 육체적 존재지만, 동시에 영혼의 목마름에 사랑과 진리를 필요로 하는 영적 존재입니다.

한쪽 날개만 가지고 창공을 날아오를 수 있는 새는 없습니다. 우리 몸은 음식으로, 영혼은 진리와 사랑으로 채워야 만족과 평화로운 기쁨을 느낍니다. 그러므로 행복에 대한 물음은 우리 삶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하고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분명한 답을 줍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지상에 두신 것은 당신을 알고 당신을 섬기고 사랑하여 천국(天國)에 이르도록 하려는 것이다.” (가톨릭교회교리서 1721항)

우리는 생의 의미와 목적지를 알았으니 이제 최상의 방법과 최고의 길에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튼튼하고 아름다운 집은 단단한 지반 위에 명확하고 훌륭한 설계도를 바탕으로 탄생합니다. 우리 삶의 설계는 하느님을 알아가는 것이요,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 삶의 반석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느님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으며 잉태되는 순간부터 영원한 행복을 향하게 되어있습니다. “암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 하느님, 제 영혼이 당신을 이토록 그리워합니다. 제 영혼이 하느님을, 제 생명의 하느님을 목말라합니다.” (시편 42,2-3)

이 행복에 대한 갈망은 하느님께서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나침반의 바늘이 항상 자기 북극을 가리키듯이 행복에 대한 갈망은 언제나 우리 영혼이 하느님을 향하게 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아는 만큼 더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하는 만큼 우리의 삶은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진리이고 사랑이신 하느님께서서는 인간의 이성에는 무한한

기쁨을, 영혼에는 끝없는 행복을 채우시어 우리의 갈증을 해소시키고 만족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 1718항 참조)

참행복은 예수님 설교의 핵심내용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저녁 식탁에 올라올 빵과 다음 날의 보다 안락한 의식주에 마음을 빼앗기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근심을 아시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하며 걱정하지 마라.” (마태 6,31)하고 믿음으로 초대하십니다.

하지만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마태5,3) 이라고 시작되는 이 가르침은 쉽지 않습니다. ‘가난하고, 슬퍼하고...박해받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고 선언하시니 분명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을 이해하며 마음에 새기는 것은 은총입니다. 참행복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희망을 선포하는 예수님의 역설적인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한 본성을 깨끗하게 해주어 우리가 하느님 나라를 맛보고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참행복에 대한 가르침은 숨 막히게 하는 물질문명 사이를 꿰뚫고 불어오는 신선한 새벽 공기입니다. 우리 영혼을 숨 쉬게 하고 진정한 삶의 평화를 가져다주며,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참행복’ 입니다!

“이 가르침에 주의를 기울이는 이는 행복하고...그 가르침을 실천하면 만사에 강해지리라.” (집회 50,28-29)

※ 참고: 가톨릭교회교리서 1701-1729항

사목국 연구실

- 성 정아상 바오로 트리아벨리 안인선주교의 -

주임신부 Fr. Thaddeus Kim 김타데오(선류) (925) 600-0188/사무실 (925) 600-0177

Pleasanton Middle School, Multi-Purpose Room

5001 Case Ave. Pleasanton, CA 94566

◆ 미사 안내 : 매주 주일 아침 9시/수 & 토요일 아침 9시 30분

날짜	지향	봉헌자
6월30일 일	연 김중화	정대레사(혜경)
	연 이성원	정대레사(혜경)
	연 정벤자민(대업)	정대레사(혜경)
	연 이마르코(재상)	가족
	연 정아네스	가족
	연 윤세실리아(귀병)	이골롬바
	연 김사비나(옥순)	이말가리다(연호)
	연 윤바오로(광의)	윤사비나
	생 정로사(화봉)	익명
	생 정베드로(병구)	찬미성가대
	생 정분다(정식)	찬미성가대
	생 이정우	전수산나
	생 양마르코/수산나가정	박대레사
	생 추소피아 사업	육아가다
	생 육아가다 사업	육아가다
	생 육마이클	육아가다
	생 하와이 ME 피정	익명
	생 정아가다(청자)	김대레사
	생 이세실리아(혜란)	김대레사
7월 2일 화	연 최베드로(희종)	가족
	연 찰리	엄힐라리오(철기)
7월 3일 수	연 부모님	이바오로
7월 4일 목	연 본당선종연령들	선종봉사회
	생 본당신부님	익명
	생 정스테파노신부님	익명
	생 성루카	지요한(영남)
	생 정로사(화봉)	지구네군다
7월 5일 금	연 형제/자매	이바오로
	연 메체도안토니오/린	서대레사
7월 6일 토	연 이베로니카	자녀들
	연 서라이운도	서대레사
	연 메체도안토니오/린	서대레사
	생 본당신부님	익명
	생 꾸리아 활성화	꾸리아

< 건축헌금 > 목표액 \$300,000  
 \* 약정액 \$311,015.28(185 세대 약정)  
 \* 봉헌액 \$291,545.28

지난주 우리의 정성

< 주일 헌금과 참여인원 >

구분	8시	11시	영어미사	합계
미사참석인원	83	261	-	344
헌 금	\$568	\$1,519	-	\$2,087

< 교무금 > \$3,465

이규주(1-6) 정일양(6) 이상주(1-12) 이기희(5-6)  
 이정연(7) 신우현(5-6) 조기상(5-7) 정애리(5-6)  
 이진열(5-6) 이병열(6) 최몽열(6) 윤순의(5-6)  
 고영남(1-6) 이성재(5-6) 김영자(6) 최응일(5-6)  
 한치용(10-12) 김관수(5-6)

< 성소후원금 >

김영자(7-12)

< Bishop's Appeal >

이규주(1-12)

< 감사헌금 > 익명 \$300

\* 김명환 안드레아 가정에서 선종봉사회에  
 \$200을 봉헌해 주셨습니다.

< 지붕공사 & 소방설비 공사 헌금>

\* 목표액 \$48,000  
 \* 총 약정 \$41,430  
 \* 총 납입 \$23,280

\* 지난 주 약정해 주신 분

박찬길, 전덕천, 조진행, 정창희, 이영기, 이욱경  
 추혜성, 익명, 정일양, 성물방, 이건용, 이주황,  
 허순구, 최윤기

\* 지난 주 봉헌해 주신 분

본당신부님, 익명, 윤문철, 박종영, 김원덕,  
 크레딧유니온, 조덕행, 전문자, 김옥녀, 송분학,  
 전숙희, 고연석, 이순자, 김범식, 김관숙, 조우승  
 조정학, 황정기, 고희권, 이성재, 남금지, 주봉진  
 한치용, 김승희, 신우현, 김민규

~~~~ 오늘 간식은 오�클랜드 ME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

2013년 신앙생활 지침 : “주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루카 19,5)

- 공 지 사 양 -

◆ 전례안내

7월 4일(목) : 성시간  
7월 6일(토) : 성모성심미사(꾸리아월례회)

◆ 지속적인 성체조배

7월 5일(금) 저녁 9시부터 7월 6일(토) 아침 7시까지

◆ 모임

\* 트랙회(청년모임) : 매주 교중미사 후 201회의실  
\* ME 모임 : 6월 30(오늘) 교중미사 후 사제관 앞 회의실

◆ 레지오 야외행사

일시 : 7월 7일(다음 주) 교중미사 후  
장소 : Joaquin Miller Park  
대상 : 정단원 및 협조단원, 예비단원

◆ Sunday School Summer Camp 기금마련 점심판매(오늘)

◆ Sunday School Summer Camp(접수 : 친교실)

일시 : 7월 27일(토) - 29(월) 중등부  
7월 29일(월) - 8월 1일(목) 고등부  
장소 : Capital Mountain  
2150 E Weimar Xrd Weimar, CA 95736  
참가비 : Early Registration (7/7 까지)  
- 중등부 \$135 고등부 \$175  
Late Registration - 중등부 \$155 고등부 \$195  
Sibling Discount : \$20/person

◆ 장학금 신청 접수(친교실)

신청일시 : 6월 23일 - 8월 11일까지  
문의 : 허석진 프란치스코 510-406-0588  
ageneheo@hotmail.com

◆ 디지털 카메라 장비구입 요령 강의

일시 : 6월 30일(오늘) 교중미사 후 107호실  
강사 : 조덕행 에드몬드 \*대상 : 관심 있는 분 누구나

◆ 성인교리반 특강 다시보기

매주 화요일 저녁 신부님께서 강의해 주시는 <간추린  
가톨릭 교회 교리서> 내용을 음성과 ebook 으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www.oakcc.org/node/2282](http://www.oakcc.org/node/2282)

◆ 신앙의 해 특강 안내

일시 : 7월 21일(주일) 오후 1시 - 4시 30분  
주제 : 신앙과 성가  
강의 : 이 종철 베난시오 신부님  
(한국 천주교 성음악 토착화 연구원 원장),  
성가 "주여 당신 종이" 외 다수 작곡  
참가비 : \$10(점심 제공)

◆ 이종철 신부님과 함께 하는 음악피정(오클랜드 본당)

일시 : 7월 20일(토) 오전 10시 - 오후 5시 반  
참가비 : \$20(프로그램, 식사, 간식 포함)  
문의 : 윤성진 루카 510-282-2271 s.yoon@comcast.net

◆ 19차 북가주 성령대회

일시 : 8월 10일(토) 장소 : 샌프란시스코 성당  
강사 : 김명선 사도요한 신부님  
(부산교구 성령쇄신봉사회 지도신부)  
참가비 : \$25(점심, 저녁 제공)  
문의 : 성령기도회 or 기도회장 510-684-7207  
\* 성령대회 파견미사 때 미사봉헌을 위한 가정봉헌 및  
사업체 봉헌도 함께 접수합니다.  
\* 단체 버스를 준비했습니다. 버스 좌석이 한정되어  
있으니 미리 신청해 주십시오.(선착순, 버스비 \$10)

◆ 가톨릭 성서 모임(조마오로 수녀님 지도)

20대 이상 미혼 청년 대상 한국어반, 영어반  
문의 : 백승진 미카엘 510-730-1524

◆ 탁구모임 안내

시간 :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3시 \*장소 : 친교실  
대상 : 전교우(연령, 경험 제한 없음)  
문의 : 명광식 니콜라스 510-332-8782

◆ 가족사진 및 가훈 접수

아직 가족사진과 가훈을 제출하지 않으신 가정은 속히  
사무실로 제출해 주십시오.

◆ 오클랜드 교구 홈페이지 봉사자 모집

오클랜드 교구 홈페이지 업로드 작업을 도와주실 봉사자를  
찾고 있습니다.  
문의 : 이해란 세실리아 925-768-5951

◆ 성물방에서 \$3,000 을 지붕공사와 소방설비 공사를  
위해 봉헌해 주셨습니다.

◆ 성물방에 새책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 7월 14일 김치바자회를 위해 김치병을 수집합니다.

안국학교 등록 안내(2013-2014)

- 개강 : 2013년 9월 7일
- SAT II 한국어 시험반( 8/3, 8/10, 8/17 )
- 특별활동수업 : 소고춤(무용전공 선생님 지도)
- 수업료 : 6월말까지 등록 \$285(등록비 내는 날 기준)  
그 이후 등록 \$300
- 문의 : 정인경 가브리엘라 415-517-3544